

발행호: 44호

발행일: 2020.03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1. ISSUE TALK

[005] 갈 길 잃은 중남미 어디로 가나?

김기현 (신문대)

2. LATIN AMERICA FOCUS - "LATIN AMERICA 사회운동의 재조명"

[017] 2.1. 브라질 원주민, 삶이 투쟁이다.

김영철 (부산외대)

[031] 2.2. 볼리비아 사회주의 운동당 (MAS)의 현재

김유경 (한국외대)

[041] 2.3. 새로운 정치사회적 행위자의 부상과 토지 문제의 전환

서지현 (전북대)

3. LATIN AMERICA BOOK JOURNEY

[053]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

조구호 (한국외대)



4. LATIN AMERICA VOICES

[065] 멕시코 신정부 (AMLO 정권 1주년) 평가

엄기웅 (멕시코 Mundus Apertus 법무법인)

5. ILAS 소식

[107] 간추린 소식



ISSUE TALK

갈 길 잃은 중남미 어디로 가나?

김기현 (선문대 스페인·중남미학과)

라틴아메리카에서 1990년대가 신자유주의, 2000년대가 좌파 붐의 시기였다면 2015년부터는 우파 부활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인 출신 우파 마크리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그해 12월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연합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좌파 마두로 정부를 위기에 빠트렸다. 2016년 6월에는 페루에서 중도우파 쿠친스키가 승리했고, 8월에는 브라질 좌파 노동당의 호세피 대통령이 탄핵되고 중도우파 성향의 부통령 테메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흐름은 2017년에도 지속되었다. 2월 에콰도르 대선에서 승리한 레닌 모레노는 좌파 코레아를 승계했지만 집권 후 우파로 전환했고, 11월 칠레에서는 역시 기업가 출신인 우파 피네라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그 결과 중남미 주요 7개국(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로 이들 국가가 라틴아메리카 전체 GDP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중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모두 우파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의 2018년은 대선의 해였다. 주요국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에서 대선이 있었다. 결과는 큰 흐름을 이야기 하기에는 애매모호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에서 우파가 승리했지만 멕시코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좌파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선거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제기되고 있지만 좌파 마두로 정부가 정권을 유지했다. 코스타리카 대선에서도 좌파 정부가 승리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GDP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대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각각 우파와 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결과는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당이 승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좌파 포퓰리즘 대통령이 등장하자 멕시코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전 이미 건설 중에 있던 멕시코시티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다른 시급한 지출을 위해 취소했다. 그리고 임기 시작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친 기업적 성향의 재무부 장관이

사임했다.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무엇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실용적 입장에서 잘 대처했다. 트럼프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강경 수사를 자제하면서 나프타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중미 이주자 문제도 큰 문제없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물론 베네수엘라 문제에는 미국과 다른 불간섭 원칙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미관계에서 실용적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경제의 거시적 안정에 있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모든 우려를 불식했다. 과거의 포퓰리즘 정부와 달리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2019년 재정수지 적자를 전 정부와 거의 같은 GDP 대비 2.7% 수준에서 유지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2018년 4.9%보다 감소한 3.6%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201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1%(예상치)로서 2018년도 대비 0.6% 포인트 감소했으며,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했다. 2019년 연 초 대비 주가도 약간 상승했다. 실업률도 2018년 3.6% 대비 2019년 3.5%로 0.1% 포인트 감소했다. 물론 세계경제의 전반적 하락세를 감안

하더라도 2019년 경제성장률이 0.3%(예상치)로 2018년 대비 1.9% 포인트 하락하고 지금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 포퓰리즘이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 분배만이 아닌 안정 속에서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힘든 과제이다.

한편 ‘열대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던 브라질의 우파 보우소나루 정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와 달리 경제성장, 반 부패, 반 범죄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범죄 척결이나 반 부패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나마 경제부 장관 게지스와 의회가 주도해 연금개혁을 이루어 낸 것이 보우소나루 정부 1년의 유일한 성과였다. 한편 보우소나루 자신은 국가의 진정 중요한 문제는 제쳐 둔 채 총기소유 제한법 완화, 사회주의 교육 제한법 제정과 같은 보수적 문화전쟁에 몰두했다. 그러다보니 그의 지지율은 현재 30% 대로 하락했다.

금년도에 기대했던 성장을 다시 이루지 못한다면 정권 유지 조차 힘들지도 모를 상황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두 대국에서 좌파와 우파 포퓰리즘 정부의 거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2019년 아르헨티나 대선은 우파 부활 흐름의 맥을 끊어 놓았다. 볼리비아에서는 좌파인 모랄레스가 대선에서 승리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했으나 불법선거 시비로 사임했다. 반면 우루과이에서는 2004년 이후 15년 간의 좌파 정부가 막을 내리고 우파가 승리했다. 2018년 멕시코에서 좌파의 승리가 하나의 멕시코 식 예외주의로 간주되었다면 마크리 정부의 실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전반적 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크리 정부 4년은 사실상 우파 정부의 시금석이었다. 2014년부터 1차 상품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1차 상품 수출 붐에 의존하던 좌파 정부들이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등장한 우파 마크리 정부는 이제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마크리 정부는 사회적 불안을 염려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소위 점진주의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기대했던 외국자본 유입을 끌어내지 못 했고 따라서 기대했던 성장도 이룰 수 없었다. 긴축과 구조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파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마크리 정부의 실패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마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던 1980년대와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14년 이후 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그렇고, 발전 모델을 놓고 당시 CEPAL의 구조주의와 IMF의 통화주의가 팽팽히 맞서던 것도 유사한 모습이다.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현상들로는 2014년 이후 좌파의 위기와 우파의 복귀 흐름 이후에도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좌파 정부는 대선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콰도르의 코레아 정부는 그의 계승자인 레닌 모레노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그 자신이 집권 후 스스로 우파로 변화했고, 볼리비아에서도 모랄레스는 공식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불법선거 시비로 사퇴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차베스주의 정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이후 집권한 우파 정부의 성격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했던 정부들과 성격이 다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한 정부들은 좌파이거나 테크노크라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국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다 좌파적 성향의 후보에 투표하지만 그렇게 당선된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구조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파 정부는 주로 기업가 출신(칠레의 피네라, 아르헨티나의 마크리)이거나 극우 세력(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콜롬비아의 두케)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과 같은 긴축과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중시위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칠레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문제시되었다. 1차 상품 수출 붐 시기 좌파정부의 빈곤감소 정책으로 중산층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1차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급기야 우파 정부가 들어서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신흥 중산층의 지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칠레에서 중산층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높은 주택 대출 이자, 높은 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여전히 OECD평균 조세율인 GDP의 3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 수준의 낮은 조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을 감소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낮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부는 긴축을 보다 강화하면서 경제적 위기의 부담을 일반 서민들에게만 지우고자 하니 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칠레의 유권자들은 이제 우파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인과 정당 모두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엘리트 독식사회를 심화시킬 뿐이며 투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피네라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혁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사실 최근 전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선거들을 보면 좌파 우파라는 이데올로기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부정만이 있을 뿐이다. 우파 정부가 있었다면 좌파가 승리하고, 좌파 정부가 있었다면 우파

정부가 승리하는 형태이다. 그러다 더 나아가면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서는 대선이었다. 선거 직후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볼리비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만 대선이 치러진다. 그 외 주목할 만한 선거로는 멕시코와 브라질의 지방 선거가 있다. 좌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선거들이다. 현재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의회 선거가 있지만 과정 자체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실시된 페루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90년대 이후 페루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푸지모리 가문의 세력이 몰락했지만 중도 성향의 비스카라 대통령도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지는 못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이번 선거 결과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는 선거라는 제도의 정치보다는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불만과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거리의 정치가 대세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2000년대에 40% 중반에 달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 24%로 떨어졌다.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이유는 민주주의 제도가 소수 엘리트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 분배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정치권이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대중시위 확산에 대해 보우소나루, 두케, 피네라 등 일부 우파 정부는 시위대의 행위를 “야만적 테러 행위”, “방화범”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거리에 배치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칠레의 경우 시위 대응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문제해결을 점점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래저래 라틴아메리카의 2020년은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부는 연금 개혁 이후 민영화, 인프라 투자 등으로 외국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입해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크리 정부와 달리 우파 정부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2. 멕시코의 좌파 포퓰리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21년 중간 총선을 앞두고서도 지금까지처럼 재정 팽창 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고 경제적 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로 인해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3.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정부는 페론주의 온건파로서 1차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4.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잃었던 다수를 확보하고 체제의 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5. 칠레의 피네라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헌법개혁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6.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소규모 국경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7. 다시 치러지는 볼리비아 대선에서 모랄레스파의 복귀 가능성은 없는가?



LATIN AMERICA FOCUS

브라질 원주민, 삶이 투쟁이다.

김영철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까르나바우(Carnaval)의 아픔

브라질의 2월은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까르나바우 열기로 흥청거린다.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흥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세상에 존재감을 알린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과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화적인 개인, 집단적인 개인 그리고 집단을 거리낌 없이 표출한다. 지난 2월도 화려한 색채의 향연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까르나바우를 빛낸 얼굴 중 원주민의 문화를 표현한 알레산드라 네그리니(Alessandra Negrini) 여배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상파울루 까르나바우 퍼레이드에서 바이수 아우구스따(Baixo Augusta)단의 여왕으로 원주민 복장을 하고 등장하면서 네티즌들이 문화유용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대해 네그리니는 “요즘 나는 원주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원주민 문화 보호뿐만 아니라 산림 보존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주민 투쟁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원주민 복장을 했다”,고 대응했다. 사실, 그녀는 342 예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로 원주민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까르나바우는 문화

이고 문화는 저항이다. 까르나바우는 즐거움이고 즐거움은 저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림) 원주민 지도자들과 함께 한 알레산드라 네그리니
출처: [HTTPS://WWW.PUREPEOPLE.COM.BR/MIDIA/ALESSANDRA-NEGRINI-DE-INDIA-EM-BLOCO-DE_M3263641](https://www.purepeople.com.br/midia/alessandra-negrini-de-india-em-bloco-de_m3263641)

이런 논란에 대해 사회학자인 이자벨라 뿌라두 홍다 (Izabela Prado Ronda)는 ‘까르나바우는 브라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일뿐 아니라 민주적인 축제이고 강요된 일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일탈과 열광의 순간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문제는 일상에 반하는 판타지가 아니라 계급, 젠더, 인종, 신조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선입견을 확인하려는 판타지이다.’라고 반박한다.

이런 논란은 까르나바우가 브라질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다양한 시각으로 까르나바우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 까르나바우가 더 이상 브라질 국민들이 마음 놓고 열광할 수 있는 해방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까르나바우는 여전히 브라질인들에게 일탈과 해방감을 주는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브라질의 국민이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과 매일매일 그 현실을 맞서야 하는 원주민들의 삶, 까르나바우와 같이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즐거워야 하는 공간에서조차도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1950년대 흑인의 까르나바우를 영화한 ‘흑인 오르페’가 생각나고 그 주제가인 ‘까르나바우의 아침(Manha De Carnaval)’이 주는 상징성과 인종적 아비투스(a)가 재현되는 것 같아 ‘까르나바우의 아픔(Dor De Carnaval)’이라고 부르고 싶다.

보호와 교화의 대상

이런 논란에 대해 브라질 원주민 연대(Articulação dos Povos Indígenas do Brasil)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변했다. 사실, 그녀는 원주민 활동가인 소니아 과자자라(Sônia Guajajara)를 비롯한 많은 원주민 지도자들과 함께 했는데, 과자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 판타지를 남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원주민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시에 이 일보다는 의회에서 진행 중인 임시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입법을 강행 중인 임시조치는 원주민 토지 내 개발과 채굴을 강제할 수 있는 황폐화 법안이고, 복음선교사들이 국립원주민재단(FUNAI)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고, 비접촉 원주민(não contactados 혹은 isolado)들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법 저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브라질 원주민들은 부족적·종족적·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원주민(Indígenas)이라고 통칭적으로 불린다. 2010년 브라질지리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0.4%

인 734,000명이었고 부족은 220개, 언어는 180개이다. 국 내에서 220개나 되는 다양한 부족을 원주민이라는 일원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개별 집단이 지닌 종족적·문화적·언어적 특성이 존중받는 자기 정체성으로 인정받길 원한다.

원주민들은 1500년에 포르투갈인들이 도착한 이후 브라질의 뿌리이며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원주민(não-índios) 집단으로부터 차별받고, 거부되고, 무시당하는 역사를 살아왔다. 브라질 혼혈의 신화가 원주민에서 시작되었지만, 인종주의로 고통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포르투갈인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 권리와 문화를 항변하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구분되고, 계층화되고, 경계의 대상이다. 최근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차별받고 있다.

1910년에 처음으로 원주민 보호청(Serviço de Proteção aos Índios)과 전국 노동자 배치(Localização de Trabalhadores Nacionais)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1889년

제1 공화정 이후 브라질 원주민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행정 체제 마련과정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전략적, 지리적, 경제적인 활용도와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 확보한 서북부 국경 지역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즉, 브라질 엘리트들이 행정 편의적인 부분, 자본과 생산 관계의 발전, 국가통합의 목적으로 추진했다. 원주민 보호청은 접촉 원주민을 우선적으로 관리했다. 1911년 12월 15일에 원주민 보호청이 발의한 9,214호 법령은 사상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원주민법은 집단적이고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점유한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 외에, 자신들의 토지 내의 원주민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주 드물게 거대 자본의 이익과 마찰이 생길 때 최종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원주민 보호청은 1967년에 해체되고, 국립원주민재단(Fundação Nacional do Índio)이 설립되어 원주민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에 가톨릭의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1972년에 원주민 선교 위원회(CIMI (Conselho Indigenista Missionário)가 만들어져 원주민의 권리와 토지 확보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함께 했다.

원주민 운동(Movimento Indígena)과 학교

1974년 4월 17일~19일에 원주민선교위원회 주도로 마투그로수(Mato Grosso) 주 지아망찌누(Diamantino)에서 제1회 원주민 지도자 회의(I Assembléia de Líderes Indígenas)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아삐아까(Apiaká), 까야비(Kayabi), 따삐라삐(Tapirapé), 리끼바끼차(Rikbaktsa), 빠레시(Pareci), 남비끼와라(Nambikwara), 샤반찌(Xavante)와 보로루(Bororo) 부족의 16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는 똑같다’라는 동류의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 것에 동의했다. 이듬해 1975년 5월 13일~16일에 아마존의 아우투 삐삐조스(Alto Tapajós)에서 제2회 원주민 지도자 회의가 열렸고, 토지투쟁, 많은 공식적인 원주민 정책 공동 참여, 많은 부족 원주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1980년에는 마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의 제1회 원주민 연구 세미나에 모인 원주민과 인류학자들이 원주민 민족 연합(União das Nações Indígenas)을 결성했고, 아일퐁 크레나끼(Ailton Krenak)와 아우바루 뚜까누

(Álvaro Tukano) 같은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원주민 운동도 통합형 조직을 구성 하던 경향이 사라지고 지역이나 지방 단위의 조직들이 강화 되었다. 80년대가 지역 단위 혹은 부족 단위 조직 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1992년에는 브라질 원주민 연대 위원회 (Conselho de Articulação dos Povos Indígenas do Brasil) 가 브라질리아에 본부를 마련했는데, 원주민 단체뿐만 아니라 비원주민(não-índias) 단체들이 참여했다. 비 원주민 단체는 ‘밖으로(para fora)’ 리더십을 보였는데, 구성원들이 좀 더 젊은층이었고, 비원주민 사회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있었다. 원주민 단체는 ‘안으로(para dentro)’ 라는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그룹의 정신적 지도자 인 엔난데루이(nhanderu'i)가 대표했다.



그림) 브라질 원주민 연대

헌법과 원주민 법들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보호받지 못하자 2002년에 원주민들이 브라질 원주민 연대 (Articulação dos Povos Indígenas do Brasil)를 결성되었다. 원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원주민 보호구역을 획정하고 보전하는 것이었고,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땅(Terra)은 차별받는 보전과 교육의 회복, 문화 알리기와 존중, 많은 원주민 부족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프로젝트, 보호지역, 법과 구획 지정에 대한 감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1970년대 이후의 원주민 운동과 1992년 원주민 교육법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원주민들은 포르투갈어를 이해하고 전통적인 원주민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사회의 다른 집단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은 원주민들을 교화시키거나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악용되었다. 1988년의 다문화주의 헌법은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교육이 보장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동원화도 가능해졌다. 또한, 법, 과학과 백인들의 법을 알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보호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학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주민 학교는 브라질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원주민 사회 운동, 저항, 부족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의 가능성을 마련했으며, 원주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회적 공간으로 발전했다.

2018년에 교육부가 실시한 기초교육학교 실태조사 (Censo Escolar da Educação Básica) 결과에 따르면 원주민 학교는 2005년에 비해 1,022개가 증가한 3,345개였고, 등록 학생은 255,888명이었으며, 교사는 22,590명이었다. 각각 초등학생 174,422명, 중등학생 26,878명, 유치원 27,053명, 어린이집은 5,365명이었고, 청소년 및 성인 교육생 21,891명, 직업교육생 279명이었다. 특히, 청소년 및 성인 교육생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며, 동시에 좌파

정부가 원주민과 흑인 학생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결과였다.

변하지 않는 원주민의 아젠다

2016년에 원주민 운동은 교회와 단절하는 변화를 선택했다. 교회는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원주민 교화를 위해 원주민 사회와 접촉하고, 19세기 중반부터 제1 공화정까지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원주민 교화와 문명화를 돕기 위해 그들과 생활했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급기야 원주민 사회의 지도자가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관계 때문에 원주민 운동이 교회와 단절한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브라질 주류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리더십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주민들이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진화하고 있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간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마존 위원회

가 출범해 지속 가능한 개발, 보존과 국방 문제를 해결하고 원주민 땅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2018년에도 ‘보호구역의 원주민들은 동물원의 동물과 같다.’고 말한 적도 있다. 좌파정부에서도 아마존 개발을 두고 정부와 원주민이 대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원주민들의 가치, 문화와 권리가 존중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부터 보호구역 침해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권리가 침탈되고 있다.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전통과 근대성 간의 부조화로 보는 오래된 이중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다. 둘째, 집단적인 과제 혹은 원주민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원주민이 정보 기술 재원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문화와 전통을 보존·발전시킬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정보화 기술 습득은 개인적인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자율화 과정을 강화하고 회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원주민 보호구역을 비롯한 원주민 땅에서 농장주들이나 대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원주민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보존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땅이 곧 자신들이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LATIN AMERICA FOCUS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MAS)의 현재

김 유 경 (한국외대 국제협력전략센터)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MAS)의 현재

- 정치 권력의 함정, 연대와 씬 없는 행동의 가치

우리에게 하나의 촛불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환희가 익숙해진 2019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대중들의 사회적, 정치적 불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좌파의 퇴진 또는 몰락이라는 공격적 수사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치지도자와 정당들은 집권에 실패했고 선거에서 보수 우파들이 득세했으나, 한편으로 대중들은 일상 속에 깊이 박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빈곤과 불평등, 부패와 부정의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대중교통비, 공공요금의 인상에서 촉발된 에콰도르나 칠레, 나아가 부정선거 의혹과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에 따른 볼리비아, 페루의 대중 시위 이면에는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던 좌파 정권도, 경제 발전의 유일한 추동력으로 시장을 강조하던 우파 정권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빈곤과 불평등,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적 요구가 잠재되어 있었다.

한편, 다른 국가들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반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친시장적 정책들이 이전

좌파 정부가 추진한 소득재분배 및 복지정책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달리,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의 무리한 재집권과 권력 독점에 대한 민주적 저항이 대중시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0월 20일 실시된 대선에 개표 부정 의심으로 시위가 시작되어 야권 지지세력의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하였고, 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미주기구(OAS)가 개표 부정 정황을 발표한 직후 군부와 경찰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자 11월 10일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우파정당인 사회민주운동당(Movimiento Democrata Social)의 아녜스(Jeanine Áñez)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모랄레스의 복귀와 임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모랄레스 지지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시위가 현재 정부들의 정책적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듯이, 볼리비아의 반정부 시위 이면에는 모랄레스의 4선 출마 및 부정선거 의혹보다 뿌리 깊은 발전모델에 대한 내적 긴장과 인종 및 지역 갈등,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모랄레스 정부와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Instrumento

Polític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MAS-IPSP, 이하 MAS)의 집권과 통치에 내재할 수밖에 없던 모순에서도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볼리비아는 천연가스와 주석 등 풍부한 자원 보유국이며 남미의 최빈국에 속한다. 풍부한 자원의 생산과 이익은 역사적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백인 중심의 국내 기득권 세력들의 몫이었으며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은 극심한 빈곤속에 살아왔다. 원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코카 재배는 미국 주도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민영화로 인한 공공서비스-물과 가스, 전기-로부터의 소외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경제적 빈곤과 노골적인 인종차별, 불평등한 부의 분배와 배타적인 정책들이 볼리비아 대중들의 일상을 구성했다. 에보 모랄레스와 MAS의 집권은 대중들의 삶의 비참함을 모태로 가능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하게 싸워 왔던 원주민들과 노동자, 도시 빈민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발전해 왔기에 가능했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은 그 과정에서 고지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조직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1985년 볼리비아국영광업공사(COMIBOL)의 대량 해고 사태에 따라 광산 노동자들이 도시 빈민층으로, 코카 재배 농민으로 유입되면서 이후 코카 재배 농민들, 원주민, 도시 빈민들의 조직화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코카 재배 농민들은 1990년대 일방향적으로 추진된 미국과 우고 반세르 정권 하의 코카 박멸 정책(공급중심의 마약 척결 정책)으로 인한 탄압과 고지대 원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코차밤바 지역을 중심으로 코카 재배 농민들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모랄레스의 정치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지지기반은 차파레 지역의 코카 재배 농민 조직을 이끌었던 그의 이력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또한 도시 빈민들의 조직화는 라파스의 빈민구역이었던 엘알토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03년 ‘가스 전쟁’에서 폭발적인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코카 재배 농민들과 원주민들의 조직들은 농민-원주민의 중첩적인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포괄하며 도시 빈민과 노동자 조직들과도 공고한 연대를

구축했고 결국 이러한 사회운동체들이 MAS의 근간을 이루었다(이상현, 2008).

다른 한편, MAS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회운동조직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MAS 이전까지 반정부적 성향의 조직들이 제도권의 정치 권력에 가까워진 경우는 대부분 무장게릴라 단체가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혁명정부를 수립하거나 사회운동 조직으로부터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분파가 분리되어 정당의 체계를 갖추고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MAS는 사회운동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정치세력화 또는 제도권 내 정당의 형식을 갖추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로서 주목을 받았다.

MAS는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유연한 조직운영과 연계된 이슈들의 정책 의제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MAS의 이점으로 부각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랄레스와 MAS가 볼리비아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물론 모랄레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에너지산업 국유화와 부의 재분배 정책을 밀어붙였다. 또한 다인종 국가를 선언함으로써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인정했다. 그리고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4선을 추진할 정도로 상당한 정책적 성과와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볼리비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와 정당으로서의 MAS는 사회운동 조직들의 정부가 되기보다는 이들의 요구를 제도권 내에서 ‘중재’ 또는 ‘조정’했고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을 근본적으로 전복하기보다는 ‘완화’시켰으며 형태적으로 사회의 결과 위에 있는 특수한 공적 권력체인 자본주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 시장자유주의자, 외국자본과 연결된 국내 자본가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운동 대표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했으며 외국의 투자와 외채를 동력으로 하는 성장 모델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재선, 3선을 거치면서 소위 ‘에보이스모’라 불리는 추종자 집단을 묵과하고 3선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원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장을 헌법개정을 통해 이루었으나 양성평등이 사회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들은 미진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전면예 나선 우파와 야당과는 별개로 일부 노동조직과 원주민 운동 연대체인 볼리비아 원주민 협회, 여성 단체인 무헤레스 크레안도 등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모랄레스 정부나 MAS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련의 정치경제적 변혁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그동안 꺾이지 않고 틈을 노려왔던 기존 정치, 경제 엘리트들에게 일시적이지 않은 위협을 가하고 종국에는 어떠한 기회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사회로의 토대를 조금씩 쌓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 어쩌면 모랄레스의 장기 집권 시도가 준 작은 기회가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듯 단시간에 그동안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로 되돌리려는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모랄레스 정부와 MAS가 추진한 정책들은 온전하게 사회주의적이지 않으며 관습적인 인종차별을 척결할 수는 없었으나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지배적 헤게모니를 전복시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며 영속적인 집권이라는 정치적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나 정치 권력을 뒷받침하는 진보적 사회세력들은 사회운동 내에 발생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 왔다.

지금까지 MAS는 역사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성과,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연대의 중심이었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랄레스와 MAS는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동시에 이들이 변화시켜야 하는 볼리비아의 사회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MAS가 성공적인 정치 세력화, 집권에 성공한 사회운동체 기반의 정당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2019년 10월 이후 볼리비아 상황을 통해 보여줬다면, 이제는 다원적이고 유연한, 그러나 연대를 지향하며 실천하고 저항하는 사회운동 조직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을 되짚어 볼 때이다.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태워도 모랄레스와 MAS를 지지하는 대중들은 여전히

위팔라¹⁾ 깃발을 든다. 2020년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MAS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후보의 지지도는 35%에 육박하며 보수 우파 Juntos 정당 아네스(Jeanine Anez) 후보의 21%보다 앞서 있다. MAS가 딛고 있는 볼리비아의 사회운동 위에서 MAS의 또 다른 정치적 실험을 기대해 본다.

¹ 위팔라는 안데스 지역 원주민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위팔라 깃발은 옛 잉카제국의 구성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일곱 가지 색깔 정사각형 조각들이 가로세로 일곱 줄로 배열됐다. 위팔라의 영토는 오늘날 볼리비아와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의 일부까지 아우른다. 모랄레스는 2009년 개정 헌법에 위팔라를 볼리비아의 기존 국기와 동등한 국가 상징물로 규정했다. 위팔라의 빨간색은 '대지와 안데스 사람들', 주황색은 '사회와 문화', 노란색은 '에너지와 강건함', 하얀색은 '시간과 변화', 초록색은 '천연자원과 부', 파란색은 '하늘과 우주', 보라색은 '안데스 정부와 자치'를 상징한다. '볼리비아 공화국'이던 국호를 '볼리비아 다민족국가(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로 바꾼 것도 2009년도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7499.html#csidx064f4b7421857ea8de8688b648fdf3c>



LATIN AMERICA FOCUS

새로운 정치사회적 행위자의 부상과 토지 문제의 전환

서지현 (전북대 스페인·중남미학과)

새로운 정치사회적 행위자의 부상과 토지 문제의 전환 :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의 사례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토지 문제와 원주민 운동

라틴아메리카에서 토지 분배 문제는 유럽의 정복자들이 식민 지배를 시작한 15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적 동학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20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토지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쟁점이었다. 20세기 초반, 멕시코 에서는 상당수의 농민들이 토지 분배와 자유(tierra y libertad)를 요구하며, 혁명에 참여하였으며, 20세기 중반 쿠바 혁명을 전후하여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나타난 농민 혁명과 게릴라 운동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 요구 사항에는 토지 분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20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 분배 요구는 독립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토지의 불평등한 분배와 그에 따른 역사·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 노동 분업에 의해 산업화 발전이 더디었던 라틴아메리카에서 토지는 당시 다수의 인구를 차지한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기반이었으며, 이들의 토지 분배 요구는 당시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적 동학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농민 운동과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토지 분배 요구가 있었고, 각국은 농업 근대화과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1980년대 외채위기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통화 기금(IMF)가 제안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기존의 정치사회적 동학의 중요한 행위자였던 노조나 농민조합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그 활력을 잃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위자들이 정치사회적 동학을 이끄는 행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시장 중심 발전 정책과 민주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국제적인 다양성과 권리에 대한 요구의 증가 맥락에서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 원주민 운동이었다. 이들 원주민 운동이 주창한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은 토지 문제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의 맥락에서 토지 문제는 이전의 “농사를 위한 토지”에 대한 권리 확보라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Akchurin (2015: 949)¹이 에콰도르 자연권에 대한 논문에서 많은 논자들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듯이, 원주민 공동체 혹은 원주민 조직에게 있어 토지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지만, 각 원주민 조직 혹은 종족 집단마다 토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요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kchurin이 Lucero(2008: 105)의 논의를 재인용하며 강조하고 있듯, 토지(land)라는 “생산 요소”로서의 사용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과 “자치권과 주권”이라는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확장된 의미의 토지를 의미하는 영토(territory)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후반 일련의 원주민 조직들이 요구하는 ‘영토(territory)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생계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20세기 후반 토지 문제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와 그들의

¹ Akchurin, M. (2015), ‘Constructing the Rights of Nature: Constitutional Reform, Mobi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cuador’, *Law & Social Inquiry*, 40(4): 937-968.

역사·구조적 경험 혹은 정치사회적 활동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에콰도르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부상한 원주민 운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인 토지 문제가 어떻게 재정의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확장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현 에콰도르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토지 문제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전국적 조직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운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특히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이미 1980년대 중반 국가 내의 다양한 원주민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 수준의 대표 기구(전국에콰도르원주민연맹, CONAIE)를 조직하고, 1996년에는 CONAIE의 정치 대의 기구인 파차쿠틱(Pachakutik)당을 창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원주민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볼리비아와 비교했을 때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여러 종족 집단들로 이뤄진 에콰도르의 다양한 원주민 그룹의 경우, 그 지리적

위치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구조적 영향으로 인해 각기 다른 형태로 조직화되어왔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조직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종족 집단들이 전국적 단위의 조직화를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1986년 11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원주민 조직들이 모인 원주민 총회에서 전국적 조직인 CONAIE를 형성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들은 크게 아마존 지역을 대표하는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연맹 (CONFENIAE), 고산 지역을 대표하는 ECUARUNARI, 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COICE 등의 지역 원주민 연맹들 및 소규모 지역 조직들로 분리되어 조직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1986년 전국적 단위의 원주민 조직으로 거듭난 CONAIE는 각기 다른 역사·구조적 경험과 요구를 가진 원주민 조직들로 이뤄져 있었는데, 이들 원주민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이 요구하는 토지의 의미는 각 종족 집단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전반적인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산 지대의 원주민 조직들에게 토지 문제는 1960년

대 중반의 농지 개혁과 농업 근대화 과정에서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기게 된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자연히 이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반면,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조직들의 경우 1970년대 아마존 지역에서 본격화된 석유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생활공간의 상실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토지(혹은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각 원주민 조직마다의 내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CONAIE와 같은 전국적 단위의 원주민 연맹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권리 향상과 토지 문제 등과 같은 공통의 문제의식 공유하며 발전하였으며, 이는 당시 민주주의로의 이행, 국제적인 다양성과 권리 담론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호혜적인 분위기와 함께 많은 국내외 시민 사회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과 토지 문제의 전환

이처럼 1990년 이후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전국적 단위의 조직화라는 성과를 이뤄냈을 뿐 아니라 이후 에콰도르 발전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하는 주요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CONAIE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 운동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콰도르 국내외 다양한 사회 조직들과의 연대 전략을 펼쳤으며, 이후 에콰도르 발전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개념들(자치, 자기결정권, 복수국민성, 자연권, 수막 카우사이 등)을 발전시켰다. 아래에서는 CONAIE가 원주민 권리 향상을 위해 펼친 연대 전략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 토지(혹은 영토) 쟁점을 중심으로 원주민 운동이 중요한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자리 잡게 된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1990년 첫 번째 전국적 수준에서 원주민 운동이 주도한 봉기에서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토지는 원주민 종족 집단들의 생계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공간²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 가속화된 에콰도르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

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이후 토지(land)는 다양한 종족 집단이 그들의 생계,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영토(territory 혹은 공유된 공간)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상당수의 원주민 운동이 주도하는 토지 요구는 영토와 영토에 대한 권리, 영토를 위한 권리를 요구하는 영토 투쟁(territorial struggles)인 경우가 많다.

에서 에콰도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주민 종족 집단들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1994년 농촌개발법(Ley de Desarrollo Agrario)이 발효되면서 에콰도르 공동토지소유제도인 코무나의 분할,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원주민 종족 집단의 삶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원주민 운동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는 원주민 사회가 역사적으로 유지해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였으며, 이러한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의 핵심에는 토지(혹은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영토)에 대한 권리 회복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원주민 운동의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은 이미 에콰도르 사회 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경험하고 있던 많은 사회 조직들과의 연대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원주민 운동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에콰도르 발전 헤게모니를 차지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1990년대 에콰도르 사회의 주류 발전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자리 잡은 원주민 조직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운동 초기 그들의 주된 요구는 시민권에 대한 것이거나, 농지 개혁과 같은 물질적 요구, 혹은 특정 산업 발전의 그들의 삶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초기 원주민 운동에게 있어 토지의 의미는 보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규정되었으나, 이후 국내외의 다양한 시민 사회 집단과의 연대 형성 과정에서 토지의 의미는 보다 확대되었고 이는 에콰도르 주류 발전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 혹은 대안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69와 같은 국제 규범들이 특정 영토 내에서 특정 종족 집단이 삶의 방식, 문화 정체성, 발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국제법상의 종족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인정 규범을 에콰도르를 포함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이 민주화와 다문화 정책의 맥락에서 국내법으로 인준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원주민 권리 옹호 단체들 역시 원주민 권리 향상을 위해 특정 영토 내에서의 자치와 자기

결정권을 주창함으로써, 이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역시 그들의 영토에 대한 권리 요구에서 자치와 자기 결정권³을 중요한 요소로 구체화 하였다.

이처럼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국내외 원주민 권리 옹호 단체와의 연대 형성과정에서 그들의 중요한 요구 중 하나인 토지에 대한 요구를 특정 영토 내에서 스스로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라는 의미로 확대하고, 구체화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에콰도르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배제되어 온 원주민 사회 집단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했음은 물론,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배제의 역사적 구조를 형성해 온 에콰도르의 발전 모델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2006년 말 진보적 좌파 정권으로 알려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당선과 뒤이은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상호문화성, 복수국민성, 자연권, 대안 발전 모델로서의

³ ‘원주민 공동체는 수여받은 토지를 기반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공동체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공동체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를 원했다. 그것은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autonomia)와 자기 결정권(auto-determinacion)이었다. 자치는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법을 행사하고 자기방어를 해 온 그 공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해달라는 것이었으며, 그 중심에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 토지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것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였다’ (김윤경, 2010: 218). 김윤경 (2010), ‘1980~1990년대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 - CONAIE의 “상호문화성”과 “복수 국민”’ 서양사론 107호, pp. 201-233.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의 개념들을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대안적 개념들이 정책으로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데는 많은 논쟁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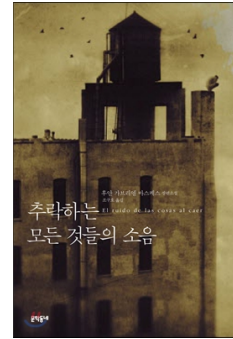


LATIN AMERICA BOOK JOURNEY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

조 구 호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이 소설은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을 예기치 않은 앵글로 비범하게 포착함으로써 놀랄 만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준다. 독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 매력적인 소설에서 바스케스는 픽션과 사실을 절묘하게 직조한다.



- 알프레도 브리세 에체니케 -

하마 이야기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1949-1993)가 남긴 하마가 현재 골칫거리라는 기사들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한다.

1993년 12월,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콜롬비아 군 특수부대의 소탕작전으로 사살되자 그의 개인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하마 네 마리가 자유의 몸이 되어 무서운 속도로 개체수를 불러 나갔다. 적도가 가까운 콜롬비아 기후는 하마들이 번식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했고, 더욱이 상위 포식자나 경쟁자도 없었다. 하마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잘 먹고

빠르게 번식했다. 2019년 현재 막달레나 강에 서식하는 하마는 최대 80여 마리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통제되지 않는 하마들이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농사를 망치는 등 피해가 크다. 하마 1마리가 배변을 통해 해마다 육지에서 강으로 옮기는 탄소와 영양분이 750kg에 달하기 때문에 하마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하마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생태계의 변화로 토종 생물이 살기 힘들게 되고, 자원의 가용성까지 훼손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처치가 곤란해진 하마를 식용으로 장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으나 죽은 하마 1마리를 검사한 결과 인간에게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렘토스피라병 등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하마를 중성화시키는 수술을 생각해냈는데, 무게 3톤이 넘는 하마를 포획하기도 어렵지만, 피부와 지방, 근육이 상상 이상으로 두껍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하마를 사냥해 죽였는데,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하마 사냥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이바지했을 뿐이다. 콜롬비아 당국은 향후 10년 동안 하마의

개체수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진정한 밀수품은 마약이 아니라 하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마가 콜롬비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마약과 폭력

1980-90년대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카르텔의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악의 힘’이 지닌 광기와 야만성으로 콜롬비아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마약 카르텔은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교통 수단인 버스를 폭파하고, 국가 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신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은 채 살해하고, 비행기를 폭파하거나 추락시키고, 책을 받은 사람이 책을 펼치면 죽도록 폭탄을 장치한 ‘책-폭탄’을 보냈다.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인구 제 2위 도시 메데인의 마약 카르텔과, 제 3위 도시 칼리의 마약 카르텔이 경쟁하고 있었다. 콜롬비아 최대의 메데인 마약 카르텔의 수장

장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한 때 세계 코카인 시장의 80%를 장악해 ‘마약왕’으로 불리고, 1989년에는 재산 250억 달러를 지닌 세계 7위의 부자가 된다. 전성기 때는 개인 경호원만 1,000명에 달하고, 면적이 3,000헥타르가 넘는 대농장 ‘나폴레스 아시엔다’에는 비행장과 거대한 동물원이 있었다. 그는 기린, 코끼리, 하마 등 콜롬비아에 없는 동물을 들여와 사육했다. 하지만 1993년에 에스코바르가 사살되면서 ‘나폴레스 아시엔다’는 폐쇄되고 정부는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 버렸다. 하마 네 마리(암컷 1마리, 수컷 3마리)는 무게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서식하기 좋은 강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 하마들이 나중에 어느 소설의 소재로, 콜롬비아 정부의 골칫거리로 변한 것이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재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가 콜롬비아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마약 밀매와 부정축재를 위해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테러를 가하고, 사람을 죽였다. 그의 살인명부에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정치인, 경찰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도 포함되었다. 1989년 5월 30일에는 보고타 소재 콜롬비아 행정정보안국(DAS)을 습격해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12월 6일 에는 ‘행정보안국’ 건물 앞에서 트럭을 폭파해 5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심지어 자신의 카르텔을 소탕하려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후보 세 명을 암살했는데, 예를 들어 1989년 11월 27일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 세사르 가비리아 트루히요를 죽이려고 콜롬비아 국적 아비안카 항공의 비행기를 폭파했다. 가비리아는 비행기에 타지 않아 죽음을 면했지만 탑승객 107명과 폭파 현장에 있던 민간인 3명이 죽었다. 이렇듯 에스코바르의 명령에 따라 모두 4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공식적인 통계는 5,000여 명에 달한다.

소설가 김인숙에 따르면, “마약으로 병들고, 마약으로 치료받고, 다시 마약으로 병드는, 이 악순환으로 물든 사회는 개인의 내면 깊숙이까지 상처를 주었다.”

추락하는 것은 소리를 낸다

작품들 대부분이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고,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등

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콜롬비아의 천재적인 작가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Juan Gabriel Vásquez: 1973 -)가 2011년에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El ruido de las cosas al caer)』을 출간한다. 작가가 조국 콜롬비아를 떠나 파리로 가기 전까지 체험한 ‘마약의 공포’를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한 본 소설은 “위대한 소설가의 모든 역량을 확인해주는 새로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르 피가로〉), 출간된 해에 스페인의 ‘알파구아라 문학상’, 2012년에 프랑스의 ‘로제 카유와 문학상’, 2013년에 이탈리아의 ‘그레고르 폰 레초리 문학상’, 2014년에 아일랜드의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을 수상한다. 〈뉴욕 타임즈〉는 2013년에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된 가장 뛰어난 작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에서 젊은 변호사이자 법학교수인 안토니오 암마라는 2009년 어느 날 거대한 동물원을 탈출한 하마들 가운데 한 마리가 사살되었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생전에 키우던 하마의 우리 탈출이라는 특이한 사건은 안토니오를 과거의 어느 기억으로 인도한다. 1995년 말에 안토니오가 보고타 시내 당구장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친구가 된,

50대 남자 리카르도 라베르데와 나는 짧은 우정과 그로 인해 겪게 된 독특한 사건이다. 리카르도는 에스코바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며 암약하던 시절에 실력을 인정받아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마약을 운송하다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에 갓 석방된 인물이다.

그 무렵 마이애미를 출발해 콜롬비아 칼리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후 어느 날 리카르도는 안토니오에게 카세트테이프 하나를 보여주며 급하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카세트테이프는 착륙 준비를 하던 중 산악 지대에 추락한 아메리칸 항공 965편의 블랙박스에 남아 있던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와 소리(소음)를 녹음한 것이다. 사망자 명단에는 리카르도의 부인 엘레나 프리츠가 포함되어 있다.

카세트테이프를 들은 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보고타 시내를 걷다가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자객으로부터 총알 세례를 받는다. 리카르도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안토니오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회복하는데 수 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과 실의에 빠져 부인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린다. 이로 인해

리카르도의 신비로운 과거는 안토니오에게 하나의 강박 관념으로 자리잡는다.

얼마 후(1999년) 안토니오는 젊은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여인은 리카르도와 엘레나의 무남독녀 마야 프리츠다. 안토니오는 그녀가 양봉을 하면서 살고 있는 농장으로 찾아가 그녀의 증언, 그녀가 수집해 놓은 편지, 서류 등을 통해 리카르도의 파란만장한 삶(1970년대 이후부터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과 콜롬비아에 평화봉사단원으로 파견되어 리카르도와 결혼한 엘레나의 ‘외국’ 삶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전 세대가 경험한 콜롬비아를 새롭게 되짚어보면서 한 사회를 강타한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적 공포를 가슴으로 절감한다.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은 다양한 항공기 사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첫 번째 사고는 1938년에 산타아나에서 화려한 비행 쇼를 펼치던 공군 비행기의 추락사고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1989년 11월 27일에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대통령 후보 세사르 가비리아 트루히 요를 죽이려고 아비안카 항공사의 비행기를 폭파한 사건이다.

세 번째는 1995년 12월 20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출발해 콜롬비아 제2 위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인 칼리의 알폰소 보니야 아라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757기(956편)가 착륙 직전에 산악 지대에 추락해 엘레나를 포함한 승객 151명과 승무원 8명이 사망한 사고다. 당시 국제공항의 관제사들은 조종사들에게 19번 활주로까지 일직선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주위를 돌아 01번 활주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는데, 그때 항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하강을 지연시키려 한다. 비행기가 산에 충돌하기 12초 전, 경고 장치가 작동하고, 충돌 임박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기장과 부기장은 그곳이 산악 지대임을 확인하고 기수 상승을 시도하나 속도 제어 장치가 작동함으로써 비행기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 오후 9시 41분 28초, 사고기는 엘 델루비오 산 서쪽 경사면 해발 약 8,900 피트 지점에서 숲과 접촉하기 시작해 국제공항 19번 활주로부터 북쪽으로 28마일 떨어진 지점에 추락하고 만다.

이 의문투성이 비행기 사고가 결국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어 안토니오와 리카르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고, 콜롬비아에서 마약과 폭력, 광기와 야만성으로 야기된 공포의 기억을 되살려 준다.

공포에 대한 기억의 문학적 형상화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은 콜롬비아 사회와 인간,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공포에 대한 기억을 절묘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쇼핑센터에 가는 것이,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버스나 비행기를 타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공포가 영속적인 메아리처럼 사람들을 지배했다.

과거의 기억을 복원해 문학적으로 기발하게 형상화 함으로서 독자를 사로잡는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의 능력은 탁월하다. 그의 동포이자 문학 선배인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말하지 않았던가?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는, “소설가의 임무는 자신의 자잘한 감각을 개성있게 꾸밈으로써 자신의 기억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는 ‘무미 건조하고 비인간적인 묘사’가 되어 버리고 만다.”고 말한다. 이렇듯 공포에 휩싸여 살던 한 시대를 진단하는 ‘흥미진진한’ 보고서이자 증언인 이 소설은 당대 콜롬비아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천착하고, 소설가로서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가장 효율적으로(문학적으로)’ 증언해야 할 필요성을 충족하고, ‘작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은 시대의 비극과 개인의 비극의 교집합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한 뒤 자칫 지나치게 어둡고 무겁게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를 흥미 진진하고 장대한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시대에 대한 통찰을 보여줌과 동시에 진한 감정적 여운까지 전달하는, 그야말로 재미있으며 동시에 ‘웅숭깊은’ 작품이다.” 소설가 정영수의 평가는 이 작품의 가치와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LATIN AMERICA VOICES

멕시코 신정부 (AMLO 정권 1주년) 평가

엄기웅 대표 변호사 (멕시코 Mundus Apertus 법무법인)

1. 들어가며

멕시코는 ‘정치라는 상부 구조가 경제 하부 토대 위에 구성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특성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권위주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적 레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국가이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외에는 다른 정당이 집권하기 힘든 구조적 속성과 정치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¹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들을 배분 하는데 있어 권력을 가진 자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꿰뚫어 본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멕시코는 이스턴의 정의를 매우 충실히 실현하고 있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대통령)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경제적 이권 부여, 주요 공직자 임명 등)가 대통령 임기 동안 이해세력들에게 철저히 분배될 뿐 아니라, 관성을 가지고, 정권을 넘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²

1 물론 2000~2012년간 국민행동당(PAN)의 집권이 있었으나, 큰 정치사의 흐름에서 2018년 12월 국가재건운동(MORENA)의 집권에 따른 정권의 성격 변화에 비할 바는 아니다.

2 이를 6년 단임 현상 즉, "Sexenio"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천동지할 사건이 2018년 7월 1일에 멕시코에서 발생했다. 1917년 이래 최초로 진보 개혁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하 ‘AMLO’)는 2018년 12월 1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2024년 10월 1일까지 5년 10개월 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³

〈사진 #1〉 환호하는 지지자 앞에 선 대통령 당선자 모습



자료원: 구글 이미지

³ 1917년 이후 멕시코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단임제 6년으로 규정하고, 선거는 7월 1일, 임기 시작은 12월 1일로 정하여 온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정치개혁을 통해 대통령 당선 후 5개월의 인수 기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헌법 제 83조를 개정하여 대통령 선거일은 그대로 두되, 임기시작을 10월 1일로 변경하여, 인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였다. 단,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AMLO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멕시코 신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53.19%의 투표를 받아 당선된 로페스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대해 멕시코 국민들은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은 궤도에 올라 잘 이행되고 있을까? 지난 일년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전진해 온 정권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새 정권의 나아갈 길과 한계는 무엇일까?

2. 멕시코 정치사 및 특징

근대 멕시코는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1910년에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의 헌법개정에 따른 연임에 반발하여 시작된 재선반대운동은 유혈 혁명으로 확대 되었고, 이는 7년의 기간동안 수차례의 혁명과 쿠데타, 그리고 암살로 이어졌으며, 1917년에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혁명 세력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대대적인 헌법 개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1920년대에는 소노라 왕조 (grupos de Sonora)라고 불리는 소노라 주 출신의 대통령들의 집권과 개인적 충성심에 따른 정치 행태인 카우디요 (Caudillo) 주의가 강하게 존재해서, 1929년에 가서야 혁명을 제도화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정당이 엘리아스 케예스에 의해 창당되었는데, 이 정당이 바로 1929년~2000년, 2012년~2018년간 총 77년을 집권한 제도혁명당(PRI)⁴ 이다.

제도혁명당은 태생부터 혁명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당이었으므로, 혁명 주체 세력인 노동자, 농민, 민중, 군인을 위한 정당활동을 목표로 한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혁명정신은 퇴색하였고, 제도혁명당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한 보수 정당으로 변해 갔다.

1988년의 개표 정전사태(Caída de Sistema), 1994년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여당 후보의 암살 등으로 PRI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2000년~2012년까지 우파 성향의 국민행동당(PAN)에 2명의 대통령을 내어주게 된다.

⁴ 최초부터 PRI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PNR(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 국민혁명당, 1929~1938)과 PRM(Partido de la Revolución Mexicana, 멕시코 혁명당, 1938~1946)을 거쳐 PRI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에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개혁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멕시코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이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인데 비해, 멕시코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

멕시코는 1917년 이후로 제도혁명당(PRI)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치 관행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현직 대통령이 당원 또는 대의원이 참가하는 전국 정당 대회를 통해 후임을 지명하고⁶, 그 후임은 어김없이 제도혁명당(PRI)의 후보로 선출되며, 그 후보는 어김없이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정치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치관행을 지탱하는 정치사회적 기제들이 존재하는데, 코포라티즘, 차리즘, 포폴리즘, 센트럴리즘 등이다.

5 멕시코의 유명한 정치사상가인 엔리케 크라우제는 10만권 이상 팔린 제왕적 대통령 ‘Enrique Krauze, La presidencia imperial (Tusquets Editores:1997)’이라는 저서에서 역대 대통령을 챕터별로 살펴 보면서, 제도가 아닌 개인 카리스마에 좌우되는 멕시코 대통령제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6 전당대회 전날까지 누구를 당 후보로 지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있다 하여 Tapado (베일에 가려있음)라는 정치용어와 전당대회 당일 극적 효과와 함께 후임을 지명하는 Dedazo(손가락으로 지명함)라는 정치용어가 존재한다.

멕시코 정치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선거 절차에 있어 제도적 민주주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기 쉽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권위주의적 당 후보 선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 후보와 노조 지도자간의 밀약과 Closed Shop⁷의 교묘한 결합에 의한 투표 왜곡⁸, 노조 지도자의 권위주의에 대한 관용과 제도적 지원⁹, 그리고 대중결합주의 정책 남발에 따른 장기적 국가 발전 정책 및 동력 부재 및 이에 따른 폐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멕시코시티로 집중되는 부작용¹⁰ 등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 또는 비판을 담고 있다.

7 조합원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고, 근로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형태를 말한다. 멕시코 연방노동법의 원칙은 Open Shop이나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노조를 위시한 많은 노조에서 단체협약 조건으로 Closed Shop을 정하여 왔다.

8 코포라티즘은 멕시코의 권위주의적 정치관행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다.

9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라고 강화한 노조의 권한은 권위주의적 노조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 노조의 권력이 사유화 귀족화 제도화 되는 폐단을 노출하였고, 이를 차리즘이라고 한다.

10 이러한 현상을 센트랄리즘이라고 하며, 멕시코 현대 정치에 있어 가장 큰 폐단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지난 100년 간의 멕시코 정치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백년 만에 처음으로 멕시코 근현대 정치사를 새롭게 쓸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일견 성공적으로 연방 차원인 중앙정치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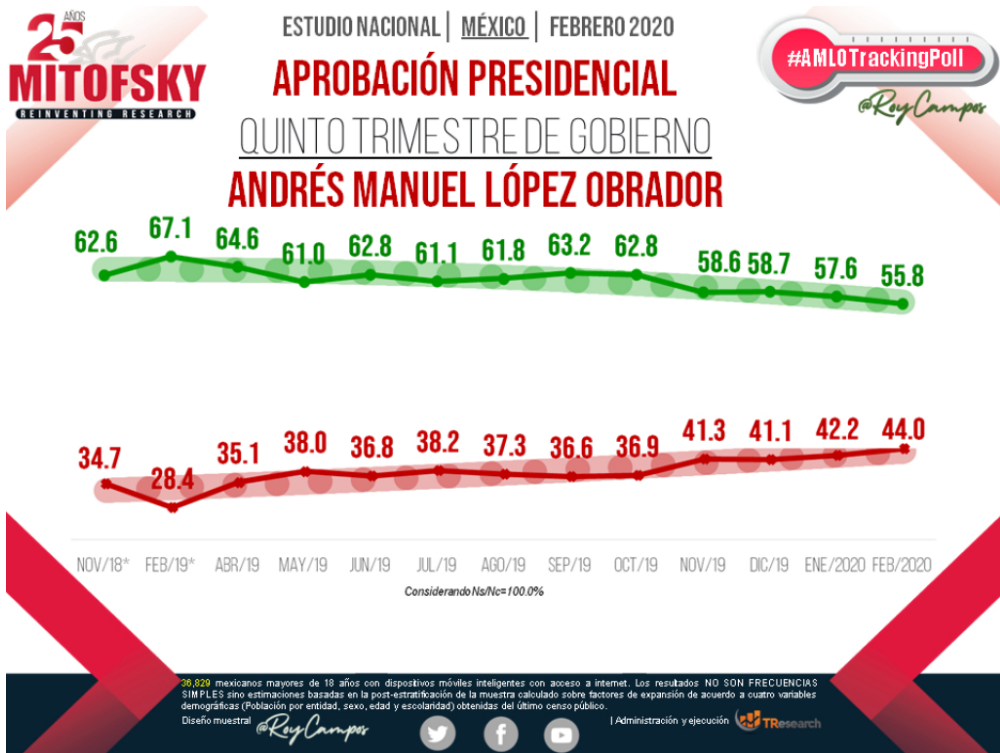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신 정부에 대한 두 가지 평가 방법, 즉, 지지도 분석과 공약 이행 분석을 통해 얼마나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지 판단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다.

3. 지지도 추이 분석

AMLO 신정부 평가에 있어 국민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기준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상 보장된 임기 중에 단기간의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국익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권의 국정 수행은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본 페이지 서술의 전제로 삼겠다.

〈표 #1〉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추이 (MITOF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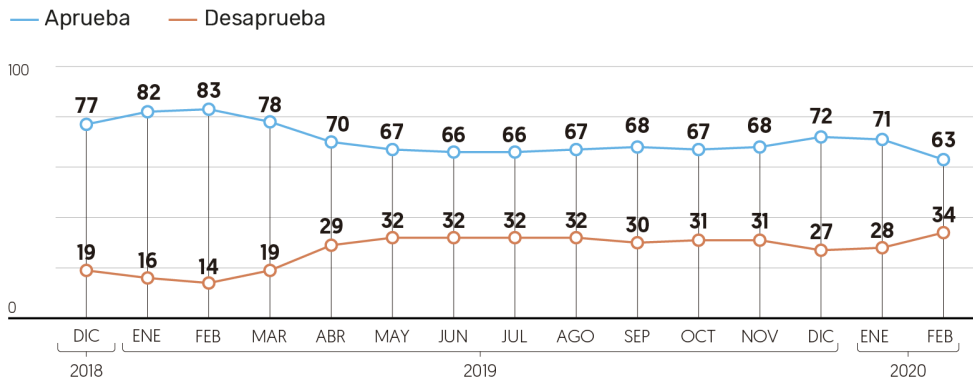
자료원: MITOFSKY 여론 조사 연구소
[HTTP://WWW.CONSULTA.MX/MEDIA/K2/ITEMS/CACHE/17C2B3CE4732475C7746C079F65D091B_XL.JPG](http://www.consulta.mx/media/k2/items/cache/17c2b3ce4732475c7746c079f65d091b_xl.jpg)

주: 멕시코 내 유수의 여론 조사기관인 Mitofsky의 여론 조사 자료임. 평균 매회 36,829명의 18세 이상 성인이 인터넷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위쪽의 녹색 그래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찬성 의견을, 아래쪽의 붉은색 그래프는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권이나 오류가 있기 때문임. 일일 여론 조사를 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음. 최근 지지율 하락은 청년층과 여성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추이 (EL FINANCIERO)

Aprobación

En general, ¿usted aprueba o desaprueba el trabajo que está haciend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como Presidente de México? (%)



Nota: No se muestra el porcentaje "No sabe"

자료원: EL FINANCIERO

HTTP://WWW.CONULTA.MX/MEDIA/K2/ITEMS/CACHE/
17C2B3CE4732475C7746C079F65D091B_XL.JPG

주: 멕시코 주요 경제 일간지인 El Financiero의 여론 조사 자료임. 매월 평균 800명의 독자에게 유선 및 무선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으며, 오차율 +- 3.4%, 신뢰도 95%임. 위쪽의 하늘색 그래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찬성의견을, 아래쪽의 붉은색 그래프는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권이나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취임 초에 비해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Mitofsky와 마찬가지로 청년층과 여성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Mitofsky와 El Financiero의 여론 조사 결과는 지지율과 반대율에서 각 10~15% 정도의 차이를 일정하게 보이고 있다. 즉, Mitofsky의 여론 조사 결과는 El Financiero의 여론 조사 보다 지지율이 10~15%가량 낮게, 또 반대율이 10~15%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 고정 독자층의 차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실제 여론은 이 두 조사 결과의 평균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AMLO 정권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찬성율을 보였으나, 당선자 시절이나 취임 초기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며, 또 최근 들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 별로 굵직굵직한 대내외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 월 대비 지지도가 향상하였으면 더하기(+) 표시를, 그 반대이면 빼기(-) 표시를, 포함이거나 양 조사 결과가 상반되면 포함(0) 표시를 하겠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지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더하기(+) 표시를, 그 반대이면 빼기(-) 표시를, 포함이면 포함(0) 표시를 하겠다.

2018년 11월 (-): 국민 투표로 신공항 건설 중지 결정 (+), 북미 3국이 결국 철강 관세 문제 합의 없이 USMCA 공식 서명 (-).

2018년 12월 (+): 대통령의 새로운 공공의료시스템 도입 발표 (+), 대통령의 북부 국경 지역 세금 및 휘발유 가격 인하 시행령 서명 (+).

2019년 1월 (+): Texcoco 신공항 건설, 공식적으로 중단 (+), 송유관 석유 절도범에 대한 공권력 행사 (+), 국가 청년 인턴 프로그램 (Jovenes Construyendo el Futuro) 시행 (+), 미초아칸 교사 노조가 철도 점거 (-).

2019년 2월 (+): 송유관 석유 절도범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 행사 계속 진행 (+), 대통령이 보편적 노령연금으로 전국의 68세 이상 모든 노인 850만명에게 2개월마다 2,550 페소 지급 선언 (0), 신용 평가회사 HR 레이팅이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7%로 낮춤 (-), 연방 경찰을 대신할 국가 방위군 창설 계획 발표 (+), 2019년 멕시코 석유 수출 20% 증가 (+), 공공예산 부정 지출 875억 페소 적발 (+).

2019년 3월 (-): S&P는 멕시코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 공식적 철회 표명 (0), Dos Bocas 신설 정유시설의 제한 경쟁입찰 (+),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면책 특권을 제거하는 헌법 수정안 상원 통과 (+), 중미 캐리반 행렬과 관련하여 미국과 대치 (-).

2019년 4월 (-): 멕시코 통계청과 IMF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을 낮게 예측 (-), 전문가들의 올해 휘발유 가격 상승 예상 (-), 높은 고도로 인해 산타루시아 국제 공항 프로젝트 예산 11.7% 증가 예상 (-), 멕시코 실업률 최근 2년 사이 최고치 기록 (-), 연방 노동법 개정 양원 승인 (+).

2019년 5월 (-): Michoacán 주에서 테러로 인해 12명 사망 (-), 멕-미 합의 실패로 멕시코의 대미 토마토 수출 시 미국에 17.5%의 관세 내야 (-),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연 최고치인 4.4% 기록 (-), 멕시코시티 초미세먼지 특별비상사태 선언 (-), 대통령이 추진한 교육 개혁법이 20개 주(州)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통과 (+), Trump가 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 관세 철폐 발표 (+).

2019년 6월 (0): 미국의 중미 캐러반 이민자 문제 해결 못할 시 멕시코에 5% 추가 관세 부과 협박을 멕시코 정부가 해결 (+), Fitch 신용평가 기관이 석유공사(PEMEX)와 전력공사(CFE)의 외채 증가를 이유로 멕시코 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로 하향 조정함 (-), 연방 정부 소유 부동산 판매 계획 발표 (+), 사회보장청(IMSS)의 5월 고용률 하락 발표 (-), 대통령의 라구나(Laguna) 중앙 버스 차선 계획 폐지 (+), 부패가 심한 연방 경찰 폐지하고 국가 방위군 창설 (+).

2019년 7월 (0): 헌법광장에서 대선 승리 1주년 대 국민 보고 대회 개최 (+)¹¹, 연방 경찰 항의 집회 (-), 연방 재무부 장관 Carlos Urzua가 대통령과 불화로 사임 (-),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지사 임기를 2019~2021 기간에 한 해 다음 연방 회기에 맞추어 2년만 하기로 했던 것을 주 의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변경하여 5년으로 연장 (+), 법원에서 전 석유 공사 사장인 Lozoya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

2019년 8월 (+): 대통령의 GDP 성장률 0.1% 성장 자축 (+), Uruapan시와 Veracruz시에서 조직 범죄에 의한 대규모 학살 발견 (-), 전 정권 사회개발부 장관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을 역임한 Rosario Robles를 횡령 및 부정 축재 혐의로 체포 (+), 파나마메리카나 체육대회 우승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금 수여 (+), 암 환자 치료제 부족 (-).

2019년 9월 (+): 43명의 교대생 살인사건 (Ayotzinapa) 사건 재수사 개시 (+), 독립기념일 축제 개최 (+), 여당(Morena)이 제 1야당이자 제 2 다수정당인 PAN에게 연방 하원의장을 1년간 이임 (+)¹², 교육 개혁에 관한 2차 법령 공포 (+).

11 2019년 7월 1일에 행한 대선 1주년 기념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취임 후 7개월간 공약 100개 중 78개를 달성하였음. 보건, 경제, 치안 등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나, 근시일 내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12 여당은 기존의 1, 2대 다수 의석 정당간 연방 하원의장 순번제 역임 법을 고쳐서 만약 한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면, 1년-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지 않고, 1년 반-1년씩 하기로 법을 수정하는 와중에 기존 법률을 준수하여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제 2 다수 정당인 PAN 당에게 신사적으로 이임함.

2019년 10월 (-): 불법 파운드화 및 달러 수취 혐의로 조사를 받던 Medina Mora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 창설 이래 최초로 사임 (+), 산타 루시아 신공항 건설 반대 헌법 재판이 받아들여져 임시 공시 중단 (-), 쿨리아칸 주에서 차포 구스만 아들을 불법 체포했다가 풀어 줌 (-), 쿨리아칸 주에서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

2019년 11월 (0): 소노라 주에서 마피아가 미국계 몰몬교 신자 가족인 LeBaron 일가 9명에게 총격을 가해 살인 (-),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마피아를 테러리스트로 지명하고, 멕시코가 요청하면 군대를 보내 이들을 척결 하겠다고 함 (-), Evo Morales 볼리비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망명 허용 (0), 연방 하원 2020년 예산안 승인 (+).

2019년 12월 (+): USMCA (T-MEC) 개정안 타결 (+), 전 치안부 장관 (2006-2012)이었던 Genaro Garcia Luna 뇌물 수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 (+), 연말 송년회 행사 개최 (+).

2020년 1월 (-): 예금 이자 소득세 인상 (-), 저소득층 의료 보험청 (Seguro Popular)을 대신할 복지보건청 (INSABI) 출범과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 (-), 난향을 겪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 매각과 관련하여 복권을 통한 경매 제도 제안 (0),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 소아암 환자의 부모들이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암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눈물로 호소 (-).

2020년 2월 (-): 여아 Fatima 유괴 및 사망 사건으로 페미니스트 운동 격화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

2020년 3월 (-): 페미니스트 과격 거리 시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인구 자가 격리 및 필수 산업 제외한 전 산업 한달 간 섯다운 조치 (-).

결론적으로, AMLO 정부는 취임 1년간 지지도는 조금씩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초기 지지층이던 청년층과 여성의 이탈로 보이므로, 이들이 AMLO에게 실망한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정 및 보강 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AMLO 공약 실현 평가

공약 달성에 대한 평가를 AMLO 신정부 평가의 두번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AMLO 정부가 성공한 정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에서 유권자와 맺은 계약인 공약의 이행 여부를 통해, 이 정부의 모토였던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는 다른 진정한 국민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약 이행도 확인을 통하여 여당과 AMLO 정권에게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 특히 유권자와 밀접한 선거인 지방 선거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약 이행 도는 향후 있을 지방선거¹³에서의 여당의 승리 가능성, 즉 이 정부의 향후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13 2020년 7월에 꼬아우일라 주 의회 의원 선거와 이달고 주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2021년 7월에 500명의 3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6년 임기의 13개 주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제 여당의 강령과 목표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초 아래 작성된 5대 분야 공약을 나열한 후에 취임 후 1년 여 간 얼마나 공약이 이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해 보겠다. 이러한 평가에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우선할 것이고, 동시에 대통령의 의회 보고서도 같이 인용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만든 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한 공약 달성 내용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전제 아래 인용하고자 한다.

AMLO가 주도하여 2014년에 만든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의 강령 제 2조에 여섯가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변혁, 둘째, 모든 형태의 억압, 부정의, 불평등, 인종차별, 불관용, 특권, 배제, 그리고 부(富)와 국가 자산의 파괴에 대항하는 자유 의지에 따른 조직 건설, 셋째, 선거에 의한 지도부의 민주적 통합, 넷째, 공직과 정치인간의 결탁에 따른 부정과 특권 근절, 다섯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기아와 가난 극복을 통해 진정한 자유 쟁취, 여섯째, 인간성, 개인과 집단의 전면적인 발전과 조국의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한 멕시코 국민의 열정, 정체성, 기억, 창조성의 최대한 발휘. 이 여섯가지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의 정신혁명과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 복지 달성 및 인간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조에서는 현 정치의 폐단인 영향주의(influyentismo)¹⁴, 정실주의(amiguismo), 친족중용주의(nepotismo), 가산제(patrimonialismo)¹⁵, 클리엔텔리즘(clientelismo)¹⁶, 배신주의(entreguismo)¹⁷, 코포라티즘을 배격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형태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단절할 것임을 적고 있다.

14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관급 공사에 있어 정해져 있는 투명한 절차나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정권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계약권을 주는 행위나 현상을 말한다. 한 예로, 3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급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중요한 원인으로, 35%가 영향주의, 25%가 기술적 우위, 23%가 부정행위라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결정권자와 관계가 없는 건설사가 뇌물을 주고 계약권을 따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설전문지, Obras, 2016.7.27)

<http://obrasweb.mx/construccion/2016/07/27/influyentismo-la-sombra-de-las-licitaciones-construtores>

15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 있어 법 제도를 뛰어넘어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적이고 과도제적인 특징을 지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16 권력을 가진 후견인(정치인)과 이익을 받는 의뢰인(투표자)간의 상호의존적인 거래 행위나 현상을 말한다.

17 협상에 있어 부당한 반대급부를 댓가로 이권을 넘겨주는 행위나 현상을 말한다. 주로, 국가지도자의 국가 자원의 부당한 판매 행위나, 부패한 노조지도자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조 권리 포기 행위 등을 말한다.

국가재건주의(MORENA) 당은 카르데나스 주의(cardenismo), 사회개혁주의(reformismo), 사회민주주의, 좌익 내셔널리즘 노선 중 민족 주권 수호, 국민 개개인의 인간성 회복, 국가 발전에 일치하는 내용을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당의 강령과 목표 아래 작성된 것이 신 정부의 정책 공약이며, 필자는 우리 기업의 시각에 맞게 이 공약들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즉, 정치 및 행정 분야, 경제 및 산업 분야, 노무 분야, 통상 분야, 외국인 투자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이제 각 분야별 대통령 공약사항을 살펴보고, 지난 1년 여간 이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시간 계획에 맞추어 이행하고 있는 공약은 ○ 표시를, 그렇지 못한 공약은 X 표시를, 어느정도 이행하고는 있으나 예정보다 뒤쳐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이행 성과를 내고 있는 공약은 △ 표시를 하여 구분하겠다. 전체 항목 중 달성한 공약을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5대 분야의 세부항목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 번호를 매기도록 하겠다.

첫째, 정치 및 행정 분야

정치 분야에 있어, AMLO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대단했다.

- (1)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O)
- (2) 민주적인 당 조직 확대 및 국가 행정조직 개편부터 시작하여, 기존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O)
- (3) 또한,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통한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와 고위관료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O)

행정 분야에 있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목표는 비용 효율화 및 지방 분권화이다.

부패와 전쟁을 통한 공공지출 감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4) 대통령 전용비행기 및 헬기 폐지 (O)
- (5) 정부 고위 공직자의 급여 삭감 및 특혜 철폐 (O)

(6) 전(前) 대통령 연금 삭제 (△)

(7) 5,000억 페소의 지출을 절감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에 사용 (○)

지방 분권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을 하였다.

(8) 연방정부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 (△)

관광부는 키타라 로 주의 체투말 시로, 환경부는 유카탄 주의 메리다 시로, 석유공사는 치아파스 주의 톱스틀라 구티에레스 시로, 에너지부는 캄페체 주의 카르멘 시로, 사회개발부는 오아하카 주의 오아하카 시로, 교육부는 푸에블라 주의 푸에블라 시로, 문화부는 틀락스칼라 주의 틀락스칼라 시로, 공공건설은행은 모렐로스 주의 쿠에르나바카 시로, 주택기금은 멕시코 주의 톨루카 시로, 보건부는 게레로 주의 아카풀코 시로, 사회보장청은 미초아칸 주의 모렐리아 시로, 목축부(명칭 변경)는 할리스코 주의 과달라하라 시로, 공무원 보장청은 콜리마 주의 콜리마 시로, 국가체육 위원회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주의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시로, 공공행정부는 께레타로 주의 께레타로 시로, 노동부는 과나후아토 주의 레온 시로, 인성개발부(신설)는 이달고 주의 빠추카 시로, 국가농산물보급위원회는 사카테카스

주의 사카테카스 시로, 통신교통부는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산루이스포토시 시로, 경제부는 누에보 레온 주의 몬테레이 시로, 공공정책은행은 코아우일라 주의 토레온 시로, 국가산림위원회는 두랑고 주의 두랑고 시로, 관광진흥기금은 나야릿 주의 바이아 데 반데라스 시로, 양봉 및 어업 위원회는 시날로아 주의 마사틀란 시로, 농어업부는 소노라 주의 오브레곤 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의 라 파스 시로, 이민청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의 티후아나 시로 이전한다.

대통령실, 내무부, 재무부, 외교부, 국방부, 해군부는 멕시코시에 그대로 둔다.

둘째, 경제 및 산업 분야

멕시코는 1917년 혁명 이후 에너지 분야 국영기업들을 통한 국가주도 산업 발전 정책을 오랜기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82년 외채 위기와 1994년 NAFTA 가입 및 제 2차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식하여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¹⁸ 현재 AMLO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산업 경제 부문에 신자유주의 색채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름이 뭐가 되었든,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AMLO식 사회주의와 함께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은 2017년 11월에 당 강령상 원칙과 목표를 실천할 10대 행동계획 (Programa) 을 공표하였다. 이 행동 계획 중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과 이에 기반한 정책들은 예상과 달리, 대체적으로 친기업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국가독점과 식량주권 경제를 회복하고, 농촌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꾀하면서, 민간분야의 경쟁은 촉진하는, 국가주도 신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AMLO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MLO는 또한, 부패가 개입된 관급공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MLO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와 산업을

¹⁸자세한 내용은 Um, Kiwoong.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and the State’s Role in Mexican Economy”. 서울대 경제학 석사논문, 2001 참조.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 부패의 구멍이 크다고 믿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경제 산업 정책은 국가의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 회복, 공정한 경쟁 및 멕시코 기업 우선 주의를 통한 국민 복지 달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자원 독점적 지위 회복이라 함은 헌법 제 27조에서 국가의 영역으로 유보한 석유 및 발전 산업에 있어 민간에 허용한 부분들을 최대한 회복함과 동시에 국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라 함은 부패를 추방하겠다는 것이며, 멕시코 기업 우선 주의라 함은 멕시코 기업을 육성 하면서 가능하면 관급 공사에서 멕시코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한 공약을 살펴보겠다.

- (9) 멕시코 중앙은행의 자율성 부여. (O)
- (10) 거시경제정책 안정. (A)
- (11) 정부 예산 흑자 달성 및 외채 감소. (A)
- (12) 소득세 인상 없음. 세금 신설 없음. 특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 가솔린과 전력요금 인하. (O)
- (13)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있어 민관 합작 유도. (X)
- (14)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석유 광구 입찰 라운드 재검토. 1년 내에 750만 페소를 투자하여 정부 주도 시추 확대를

통해 일 석유 생산량을 현재 19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확대. 2년 내에 490억 페소를 투자하여 기존 6개 정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정유 생산을 현재 2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확대. 3년 내에 1,600억 페소를 들여 타바스코 주 파라이스 시의 Dos Bocas 지역에 정유시설 1개 신설. 따라서, 3년 내 원유를 수출하고 정유를 76% 수입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솔린 가격 인하 달성. (△)

- (15) 1년 내에 200억 페소를 들여 수력발전 시설 현대화, 신재생 발전 시설 확장. 키타나 로 주에 타바스코 주 및 캄페체 주로부터 용수 공급. (X)
- (16) 매년 100만채 이상의 서민주택 건설. (X)
- (17) 칸쿤-톨룸, 칼락물-팔랑케를 연결하는 관광문화 열차 개발. (△)
- (18)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조성하고, 이 지역에는 부가세 8%, 소득세 20%로 인하하고 최저 임금 2배 인상. 미국과 전력, 가스, 가솔린 요금 동일하게 유지. (O)
- (19)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 구축.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 (△)
- (20) 동남부 지역의 Lcandona 삼림 및 Usumancita 강을 중심으로 1백만 ha의 면적에 유실수 및 목재수 식수. (△)
- (21) 현 88.36페소인 일 최저임금을 매년 약 15% 인상하여 정권 말기에는 171.8페소로 인상. (O)

- (22) 30만명의 빈곤층 대학생에게 월 2,400페소 장학금 지급, 230만명의 청년 새내기에게 월 교육훈련비 3,600페소 지급. (O)
- (23)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생활자 그리고 빈곤층 장애인에게 월 1,200페소 지급. (O)
- (24) 교사와 간호사 급여 인상. (O)
- (25) 낙후한 농촌지역과 원주민 사회 복원. 농산물 최저 구매제 도입하고, 농산물 자급경제를 구축. (A)
- (26) 은행 국유화 계획 없음. 금융분야 참여자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O)
- (27) 현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허가 철폐 없음. (O)

전문가들은 1년 전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며,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으나, 현재 AMLO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 악화로 페소화의 가치가 절하되었으나, 그외의 거시 경제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노무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노동분야에 대한 생각은 인간다운 노동자 구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증대하며, 권위주의적인 노조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근로자이익분배제도(PTU) 미지급 및 불법 아웃소싱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비효율적인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도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다수당이 된 의회에서 연방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노무 분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28) 지난 2012년 말의 친기업적 성향의 노동법 개혁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법 개정 추진. (O)
- (29) 코포라티즘을 배격한 민주적이고 근로자 우선의 노조 활동 지원. (O)
- (30)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및 관련 법을 근로자가 실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개정. (A)
- (31) 현 88.36페소인 일 최저임금을 매년 15% 인상 하여 임기 말에는 171.8페소 달성. (O)
- (32)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최저임금 2배 인상. (O)

넷째, 통상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가 통상에 있어서 피해를 보면 안되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33) 전 정권에서 합의한 신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T-MEC) 재협상에 임하여 결국 재협상을 통해 개정된 협정을 얻어냈다. (O)
- (34) 전 정권이 추진했던 다자간 무역협정인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O)
- (35) AMLO는 시우닷 후아레스 등 국경도시의 세관을 남쪽으로 20~30km 이전하여 국경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A)

다섯째, 외국인 투자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외국인 투자 분야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사항이 많지는 않으나,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36) 전면적 국유화 사태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발생 하지는 않겠지만, 에너지 분야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O)
- (37) 우선적 기회를 국내기업에게 주고, 외국자본에게 허용 하는 관급 공사 입찰 참여의 문은 좁히겠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력이 있는 외국 기업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겠다고 하였다. (O)
- (38)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감독에서 외국 기업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O)

필자가 위의 38가지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했을 때, 이행한 공약은 24개,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3개, 미흡한 수준으로 중간 평가를 받는 공약은 11개이다.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도가 77%로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의 자체평가는 공약 이행도가 89%이다. AMLO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100대 공약 중 89개를 이행하였다면서,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집중하여 언급하였다.

첫째,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개혁

- 1) 부패 및 불처벌 관용 척결, 2) 정치 참여 보장, 3) 국민의 건강권 이행, 4) 노약자 연금 및 청소년 장학금 부여, 5) 건축 재정 시행, 6) 송유 절도범 검거

둘째, 자원의 보다 공정한 배분

- 1) 목표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나, 자원의 보다 공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분배하였음.
- 2) 대통령실 예산 75% 감축 등 정부건축재정으로 2019년도에 2천억 폐소 절감.
- 3) 절감한 재원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
- 4) “생명의 씨앗 뿌리기”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2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
- 5) “미래 건설 청년 (Jovenes Construyendo el Futuro)” 프로그램을 통해 93만 일자리 창출.
- 6) 최저임금 16% 인상.
- 7) 재정 건전화 달성.
- 8) 증세 없는 국정운영 달성.
- 9) 지난 3년간 최저 인플레이션 달성.
- 10) 달러 대비 폐소화 강세 달성.

셋째, 인프라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1) 향후 인프라 분야 민간투자 134개 프로젝트 7,090억 페소에 예상. 2) 2019년도 도로 건설 및 유지 예산 425억 페소 중 200억 페소를 도로망 정비 사용. 3) Tehuantepec 지협 개발사업. 4) 과달라하라 철도사업. 5) 6개 정유시설 정상. 6) Dos Bocas 정유시설 신설 진행. 7) Emisor Oriente 터널공사 완료. 8) 송유관 회사들과 협정을 통해 45억불 절감 및 20년간 안정적 공급 달성. 9) 외국인 직접 투자 260억불로서 역사상 최대액수 달성. 10) 관광산업 진흥.

넷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점 시행

1) 멕시코 가구 50% 이상이 1개 이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 2) 원주민 가구는 95%가 지원받고 있는데, 향후 100%에 도달 예정. 3)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중점. 4) 2020년에 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해 4백억 페소 추가 투입 예정.

다섯째, 국가 안전 집행기관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정책

1) 치안 집행기관의 고문 및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정책 추진. 2) 43명 교대생 실종사건 (Ayotzinapa)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3) 무소불위였던 군대 및 경찰이 앞으로는 인권 존중 및 무력 제한 사용 원칙을 준수하며 공공치안 확보.

여섯째, 대외정책 (미국과 볼리비아)

1) USMCA(T-MEC)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2)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을 체포작전 도중 풀어준 사건(Culiacan 사건) 및 멕시코 카르텔에 의해 미국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LeBaron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 표명. 3) 미국이 멕시코의 독립성과 주권을 존중함을 높이 평가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자유 주권 국가로서 어떠한 개입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함. 4) 멕시코 남부와 북부 국경의 이민 문제, 초국경 범죄, 인신 매매, 무기 및 불법 마약/자금 유통 등 멕-미 공동 문제를 상호 존중 정신에 의거 해결. 5) 멕시코의 전통은 인도주의적 전통이므로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볼리비아 원주민을 대표하며 쿠데타의 희생자임.

결론적으로, 필자의 평가로는 77%,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로는 89%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므로, AMLO 정부는 취임 1년간 공약 이행률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리더십

최근 두 달간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멕시코도 예외없이 지도자의 위기 극복 리더십을 단기간에 상징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멕시코는 이미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의 발원지로서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고 초기 대응이 늦어서 전세계에 피해를 끼쳤다는 원망을 톡톡히 받은 바 있다. 그 이후로 사회 안전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초기 대응은 전문가의 의견을 좇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사먹으라’느니 ‘나는 정적들이 원하는 양성 반응 검사를 받지 않겠다’느니 하는 일부 발언의 실수가 있었으나, Hugo Lopez-Gatell Ramirez 연방 보건부 차관이라는 훌륭한 전문 관료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MLO 대통령은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간 시점인 3월 31일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특유의 수사를 써가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지금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를 맞아 멕시코가 싸우고 있다. 멕시코는 비만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낼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 찬란한 문화 유산과 전통. 멕시코는 찬란한 문화 유산 (mosaico de cultura)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화 유산 내에는 연장자를 존경하는 장유유서의 전통도 가지고 있다. 둘째, 젊은 평균 연령. 미국 43세, 이탈리아 44세인데 비해 멕시코는 28~29세이다. 젊을수록 바이러스를 이겨낼 확률이 높다. 셋째, 단결(unidad). 위기일수록 멕시코 국민은 단결하는 습성이 있다. 서로 도와야 한다. 앞으로 한달간 직장을 임시 폐쇄할 것인데, 사용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서 함께 버티자.”

현재 멕시코는 4월 30일까지 긴급조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국민들은 모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필수 분야¹⁹를 제외한 모든 직장은 출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긴급 명령의 내용은 근로관계 임시 중단 효과를 가져오는 3단계 경보이나, 형식은 2단계 경보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로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실질적인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연방노동법 제 429조에 4항에 의한 근로관계 임시 중단 효과가 발효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동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정상 급여를 줄 필요가 없고, 최저 임금만 최대 한달간만 배상금 조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¹⁹ 정부가 3/31 오후에 연방 관보에 공표한 5대 필수 분야 (actividades esenciales)는 다음과 같음. 1) 보건 분야, 2) 치안, 국방, 입법 및 사법분야, 3) 경제 산업 분야, 4) 정부의 사회 프로그램 분야, 5) 국가 인 프라 유지 분야임. 경제산업 분야의 필수 업종은 금융, 조세, 에너지 수송 및 판매, 가솔린, 가스, 상수 창출 및 보급, 음식료 생산, (주류 제외), 식료품 시장, 슈퍼마켓, 식료품점, 가공식품 판매점, 여객 및 화물 수송, 농업, 목축업, 수산업, 농산물 가공업, 화학업종, 세정 제품 생산업, 철물업, 택배업, 민간 경비업, 경비원, 민간 유아원, 요양원, 피해 여성 보호소, 정보 통신업, 민간 응급 앰블런스, 장례업, 냉장(냉동) 상태 원료 저장 및 공급업, 물류 (공항, 항만, 철도), 중단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지니는 산업임.

〈사진 #2〉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기자 회견하는 대통령



자료원: LIBRE NOTICIAS
[HTTPS://LIBRENOTICIAS.COM/AMLO-SOBRE-CORONAVIRUS-EN-MEXICO-NO-OCULTAMOS-NINGUNA-INFORMACION/](https://librenoticias.com/AMLO-SOBRE-CORONAVIRUS-EN-MEXICO-NO-OCULTAMOS-NINGUNA-INFORMACION/)

AMLO 대통령이 3월 한 달간은 잘 해 왔는데, 이 위기 상황을 끝까지 잘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정 수행 찬성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직까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른다. 멕시코 내부적으로는 확산 속도가 진정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육로로 인접해 있는 미국이나 과테말라로 인해, 그리고 완전히 폐쇄할 수 없는 하늘 길로 인해, 다시 확산 속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위기 상황이 길어지고, 국민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기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후유증만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고통 분담을 국가 성원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선때 사용했던 ‘4차 혁명’과 같은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국민들이 물리적인 고통분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때이다.

멕시코내 전문가들은 빠르면 6~7월, 늦으면 8~9월에나 현 상황이 진정되고, 예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AMLO 대통령이 이 위기 상황을 잘 수습하여, 특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향후 4년 반의 잔여 임기를 이끌어 갈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6. AMLO 정권의 나아갈 길

멕시코 근대 정치사에 있어 대변혁이 시작된지 일년이 겨우 지났다.

많은 이들이 AMLO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에 광풍이 몰아쳐서 과거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행하여졌던 급진적인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AMLO의 인생역정, 지지기반, 지난 시절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예상이 무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AMLO가 이러한 신념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책으로 표출시키지는 않았고, 기존 정책의 큰 틀에서 최대한 개선시켰다. 물론 신 자유주의 정책은 더 이상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으나, 이는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고, 새로운 AMLO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전면적인 사회주의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일년간 신 정부의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앞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격점을 주고 싶다.

지난 80년간 성장하고 고착화된 제도권 언론, 자본가, 보수 정치인, 귀족 노조 등의 거대한 ‘현상 유지 세력’에 맞서서, 오직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싸워온 ‘현상 타파 세력’인 AMLO 정부는 소위 살아 있는 권력임에도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싸움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다시 ‘힘의 균형’이 찾아오고, 표면적 평화도 찾아올 것이다.

AMLO 정부가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힘의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내적인 요소로서 국민과 생산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능력이다. 대의 명분을 제시하고, 적당히 당근도 쥐어 주면서, 반대하는 세력을 같은 방향으로 견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국가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도 과감히 수용하고, 기존의 정책은 개선시킬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AMLO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일부 노정되었다. 유연하면서도 즉각적인 정권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대외적인 요소로서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국가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능력 밖에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국제 유가, 환율, 전염병 사태나 중국의 생산성 악화 같은 독립 변수 등이 멕시코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해 줘야 한다.

첫째 요소는 멕시코가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지만, 둘째 요소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두가지 요소를 긍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신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현상 유지 세력의 무차별 공격에 의하여 급속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AMLO의 별명은 페헤이다. 페헤(Pejelagarto, 동갈치)란 AMLO의 고향인 타바스코 주에서 많이 잡히는 민물고기로서, 맑은 물에만 사는 1억년 전부터 존재해 온 살아

있는 화석 생물이라고 한다.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인 AMLO와 페헤, 선명성을 추구해 온 정치인 AMLO와 페헤는 닮은 점이 많아 보인다. 혁명 이후 100년이 지났다. 그리고 신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다. 향후 100년의 초석을 놓을 새로운 멕시코의 운명이 페헤에 달려있다.



IILAS NEWS

간추린 소식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1. 제 1회 아시아 멕시코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09.20.~09.22)



(아시아 멕시코학 국제학술대회)

중남미지역원은 “21세기 멕시코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1회 아시아 멕시코학 국제학술대회를 9월 20일~21일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인문한국플러스(Humanities Korea Plus: HK+)사업의 일환으로 재한멕시코교수협회와 중남미지역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멕시코학’ 국제학술대회로서 미국, 멕시코,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국내외 멕시코 연구자 40여명이 ‘멕시코의 문학’, ‘멕시코의 정치·경제’, ‘멕시코의 사회문화’, ‘아시아와 한국에서의 멕시코 연구’ 등 폭넓은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하수권 부총장, 주한멕시코 브루노 피게로아 대사, 재한멕시코인협회 클라우디아 브리에뇨회장 및 중남미지역원 임상래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둘째 날 재한멕시코인협회, 재한멕시코 교수협회, 재한멕시코유학생협회, 재한멕시코여성협회의 각 대표들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2. 제 53회 초청강연회 (2019.10.14.)



(중남미지역원 제 53회 초청강연회)

중남미지역원은 10월 14일 제 53회 초청강연회 및 KOICA 다년간 대학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오 준 이사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하였다.

3. 제 54회 초청강연회 (2019.10.17.)



(제 54회 초청강연회)

지난 10월 17일 중남미지역원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열대학연구소의 이종찬 교수를 초청하여 ‘왜 훔볼트의 세계사인가’라는 주제로 중남미지역원 아젠다 연구를 위한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초청강연회의 내용은 ‘1. 지식의 경계를 유목하라’, ‘2. 세계를 탐험하라’, ‘3. 自然史를 혁명하라’라는 큰 세 가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알렉산더 훔볼트의 탐험 경로를 따라 조사한 결과물을 나누고 열대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역사 그 안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4.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브라질 영화 주간 진행 (2019.10.28.~10.31)

(브라질 영화주간 프로그램 안내)

중남미지역원은 한-브라질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28~10월 31일 부산외대 중앙도서관 금샘소극장에서 브라질영화 주간을 진행하였다.

본 영화 주간에서는 첫 날 제 5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엘리트 스쿼드(주제 파질라 감독)’을 시작으로 ‘미래에서 온 사나이(클라우디우 토레스 감독)’, ‘쓰레기(스티븐 달드리 감독)’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 4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제 56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및 제 52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외국어 영화상 등 유명 영화제에서 다수 수상한 작품인 ‘중양역(윌터 살레스 감독)’의 영화까지 평소 영화관에서 쉽게 접해 보기 어려웠던 브라질의 유명한 영화 총 4편을 상영하였다.

5.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문화동호회 및 명저읽기 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실시 2019.10.27.[6회], 2019.11.26.[7회]



(라틴문화모임 ‘부에나 비스타’의 정기모임)

중남미지역원은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문화동호회 및 명저읽기 모임 ‘부에나 비스타’는 부산·경남권의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매달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명저 읽기와 명화 감상시간을 가진다. 본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 26일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26일까지 총 8회의 모임을 가졌다.

6. 제 14회 라틴아메리카 인문주간 행사 개최 (2019.11.01.~11.22)

일정	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1. 01 (금)	18:30 ~ 18:30	개회식(부산대)	- 주례: 제14회 인문주간 위원회 - 축사: '인문주간' 부산일보 대강당 (부산대) - 영수: '인문주간' 영수증
11. 01 (금)	14:30 ~ 15:30	인문학 콘서트	- 주제: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 (부산대) - 영수: '인문주간' 영수증
11. 08 (금)	15:00 ~ 17:00	인문학 콘서트	- 주제: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 (부산대) - 영수: '인문주간' 영수증
11. 15 (금)	15:00 ~ 17:00	인문학 콘서트	- 주제: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 (부산대) - 영수: '인문주간' 영수증
11. 22 (금)	인문학 콘서트	- 주제: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 (부산대) - 영수: '인문주간' 영수증	
11. 29 (금)	17:00 ~ 18:00	폐회식	- 주제: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 (부산대) - 영수: '인문주간' 영수증



(2019년 제 14회 라틴아메리카 인문주간 행사)

중남미지역원은 2019년 제 14회 라틴아메리카 인문주간 행사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개최하였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었다. 인문학 콘서트의 첫 번째로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중남미 지역원 임상래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윤현주 부산일보 선임 기자의 "내가 만난라틴아메리카"라는 주제의 인문학 콘서트가

열렸다. 윤현주 부산일보 선임기자가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였던 볼리비아, 페루, 칠레 등의 남미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주차 인문학 콘서트는 부산외대 트리니티홀 (D동) 105호에서 이경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사의 "내가 본 라틴아메리카의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3주차 인문학 콘서트는 부산대 카페봄 모임공간에서 장용석 전남 음악창작소 소장이 "내가 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인문주간 마지막 인문학 콘서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정혜주 HK연구교수가 "내가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상래 중남미지역원 원장의 간단한 폐막식을 끝으로 4주간에 걸친 인문주간이 막을 내렸다.

7. 한국-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공동주관 (2019.10.31.~11.01)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을 수행 중인 중남미지역원은 10월 31일-11월 1일 양일에 걸쳐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와 외교부가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한국-브라질 수교 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국-브라질 관계의 미래” 로

한·브 수교 60주년 성과를 고찰하고, 급변하는 국제관계와 생태환경 속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패널로 구성되었다.

8. 제 39차 콜로키엄 (2020.02.13.)



(제 39차 콜로키엄)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2월 13일 제 39차 콜로키엄에서 ‘적폐인가 적대인가: 칠레 시위에 대한 소견’이라는 주제로 칠레가톨릭대학교 민원정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의 내용은 칠레 시위의 원인, 한국의 촛불 시위와 칠레 시위의 비교, 칠레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주제로 현재 칠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생존에 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칠레의 극심함 빈부격차와 시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인식과 시민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